



머리글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10여 년 동안 조현병을 싸워 이겨낸 사람의 체험을 적은 책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의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조현병을 이길 수 있다고?

엄마는 딸이 폐쇄 병동에 갇혀 생활하다 오랜만에 집에 왔을 때 예쁜 장미 찻잔으로 멋지게 테이블을 차려놓았다고 합니다. 자해하느라 잔을 깨는 딸의 버릇을 알면서도 엄마는 딸을 믿으며 그렇게 환영했다고 합니다. 라디오 진행자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조현병 완치가 기적이라면, 그 기적은 믿음에서 온다고 말이죠. 이 말이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마침 정신과 의사 역시 사연을 보내서, 조현병은 온전히 회복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가족들이 서로를 믿고 걸어가는 치유의 여정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의 확진 판결 뉴스를 보고 무척이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이나 수용자 형제의 음성 결과를 듣고 한숨을 돌리면서 그 좁고 불편함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전염시키지 않으려고 서로들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구나'라며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교정직원도 그렇고, 또 우리 형제들 서로들도 그렇게 말입니다. 덥고 답답하겠지만 서로 마스크를 쓰고 배려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극복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내가 걸릴까 두렵기도 하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어찌지 걱정도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기로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독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이 불가능을 조금씩 극복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당장 서로를 만나보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역시 극복해야 합니다. 수용자, 출소자에 대한 색안경, 그리고 수용자 형제자매님들은 자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의 완치 여정을 함께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용자 형제, 자매님들은 자신들의 변화를 믿고, 그리고 봉사자, 후원자분들은 그렇게 우리 수용자분들의 변화를 함께 응원하고 후원했습니다. 이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 쉽게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믿고 독려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모두가 함께 어울려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회를 이루어내도록 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서로 믿음과 배려 속에서 이루도록 합시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시메온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시메온의 뜻은 ‘(하느님께서) 들으시다’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시메온은 자기의 막내 여동생 디나가 이민족에게 성폭행을 당하자, 그 이민족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인 시메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들고, 거침없이 성읍으로 들어가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 그들은 양과 염소, 소와 당나귀, 성안에 있는 것과 바깥 들에 있는 것들을 가져갔다. 재산을 모두 빼앗고 모든 어린아이들과 아낙네들을 잡아가고,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약탈하였다. (창세 34,25.28~29)

시메온은 이 이민족을 약탈하기 위해 계략까지 세웁니다.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는 이민족 족장의 아들에게 할례를 받아 우리와 같아진다면 결혼을 승낙하겠다고 하고, 그 할례를 받아 아파하고 있을 때 칼을 들고 쳐들어간 것입니다.

분노에 쉽게 휩쓸리고 이 분노가 폭력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간계를 쓰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그의 성격으로 미루어,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형제의 이름을 성서는 밝히지 않지만, 시메온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요셉이 후에 이집트에서 재상이 되고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갔을 때, 시메온을 묶고 감옥에 넣었던 것(창세 42,19.24)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을 성폭행을 당한 막내 여동생을 위한 정당한 보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쓰인 것이니, 하느님은 시메온의 편에 서서 잘했다고 할까요? 당장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질책을 당합니다(창세 34,30). 그리고 야곱은 집안이 몰살당할까 걱정을 하면서 결국 그 지역을 떠나 베털로 갑니다(창세 35,1). 시메온은 이 일로 인하여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전에 축복을 받을 때,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습니다. “잔악한 그들의 분노는 저주를 받으라. 나 그들을 야곱에 갈라놓으리라. 그들을 이스라엘에 흩어 버리리라.”(창세 49,7) 거기에, 시메온 지파의 수는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와 40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비교하면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자손이 많아짐이 축복이었는데, 거의 쇠약해지는 그 자손을 보면 그 축복을 받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우리 역시 분노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시기와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죄악이고, 그 결말은 자신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그 후손까지 영향을 받는 것을 시메온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이동선 히야친타_서울구치소 여사 대표봉사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잠식(蠶食)하여 지구촌을 초특급 질병 공포로 몰아 놓은 이 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만이 개인과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감염방지대책이라니, 부와 권력(힘) 주의로 바벨탑을 쌓아 올린 과학 만능시대의 경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산속에선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이러스 질병 체계에서 취약한 것이 사람이다 보니, 마스크 착용 없이 누군가와 만나 먹고 마시고 대화한다는 것은 임의적 자살행위로 바이러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일이겠지요.

매주 화요일이면 수용자들을 만나 천주교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 나와 이웃을 위한 은총의 통로이며 축복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작년 12월 성탄 집회를 마침으로 두 달 여간의 겨울 방학을 하고, 새봄 설레는 마음으로 개학을 준비하던 중,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질병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크고 작은 행사가 전면 취소, 보류되고 교정봉사 집회 또한 잠정 연기되는 심각한 현실에 허탈감과 초조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께 의탁하며 멈출 줄 모르는 환난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학 첫 집회 때 전에 배운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울동과 함께 노래해 볼 참이었습니다. 서로가 초면인 봉사자와 수용자라 해도 노랫말을 음미하면서 울동을 하다 보면 어색함은 잠시뿐이고, 어느새 살갑고 정겨운 눈 맞춤과 미소로 화답해주는 그들이 더없이 착한 사마리아인들로 다가옵니다. 언젠가 손 석고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각자가 자기 손을 지점토를 이용해 본을 뜨고 완성 후 작품 소감을 독백형식으로 말할 때, 듣고 있던 모두가 공감하며 함께 눈물짓던 일이 잊히지 않습니다.

내 몸의 한 지체로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손.

이왕이면 예쁘고 복스러운 손이면 좋을 텐데 투박하고 거칠어 남들에게 보이기 썩스러운 내 손.

내 원의에 따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재능과 능률을 겸비한 손이면 좋겠는데, 뚱손인지 재주가 매주라서 그럴듯한 작품을 만들어 보지 못한 내 손.

그래서인지 내 몸의 지체이지만 별로 소중함을 못 느낀 내 손.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나를 위해 온종일 부산히 움직이며 씻고 닦고 입히고, 만들고 먹이고 작업

하고 노동하느라 때때로 베이고 찢기고 부딪쳐 명이 들고 손마디가 굽어져도 제대로 치료 한 번 안 하고 지나친 내 손이다. 상처로 인해 피가 나고 철문에 손가락이 끼어 손가락뼈가 텅그러 져도 “아야!” 하는 비명 한마디로 아픔을 달랬던 내 손.

그 흔하디흔한 보습제 한번 충분히 덜어 촉촉이 발라주는 호사는커녕, 내 손이지만 정말 못생겼네 하며 스스로 핀잔과 자책으로 혹사하다가 힘에 부쳐 손목에 금이 가 김스를 했을 때야 비로소 손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지.

남들처럼 잘 보겠다고 억척스럽게 일만 하느라 하루도 손에서 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

손 석고 작업을 통해 이제야 내 손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거칠고 둔탁하고 불품없는 내 손과 마주하니 서러움과 후회가 물밀 듯 밀려온다.

언제 한번 수고했다, 고맙다, 애썼다 하며 쓰다듬고 다독여 본 적 없는 내 손이다.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에 느껴진다. 올 엄마가 미치도록 보고 싶다.

인제 보니 내 손은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어 준 올 엄마 같은 존재였구나.

정말 미안해, 그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았어, 내 손아!

고된 삶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거짓 없는 내 손이 이제 더 부끄럽지 않다.

고맙고 사랑스러운 나의 손!

올해 만 5년 차가 되는 봉사자인 만큼 제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곱게 물들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수용자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기도 안에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억합니다. 비록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리에 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수용자들이 알고 있는 한, 저를 포함한 교정봉사자들의 희망과 사랑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표징이 따를 것이다.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마르 16,7-18)





집! 중! (focus)

박안나 안나 _ 교육홍보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아 지난겨울 감기 환자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저는 마스크에 화장이 묻어난다는 핑계로 화장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장을 안 한다는 이유로 출근 시간이 조금이나마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제 얼굴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자연스러운 얼굴에 익숙해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외모보다는 눈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눈빛에 다양한 감정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빛나는구나, 끔찍한 사건들에 분노할 때는 저런 눈빛이구나' 살아있는 눈빛들을 발견하고는 그 친구가 더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저는 신부님의 배려로 잠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괄량이 쌍둥이 남매와 지지고 볶으며 업무를 병행해야 함에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엄마랑 있어서 좋았던 아이들도 집에만 있다 보니 짜증이 늘었고, 그런 아이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변해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금쪽같은 시간을 왜 안 좋은 감정으로 소모하고 있나 싶어 아이들에게 좀 더 집중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이가 짜증을 냈는지, 뭐가 속상한지 알게 되었고, 그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었더니 아이들의 짜증이 줄어들어 저도 소소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개미의 사연을 알게 되면 연민이 생겨 함부로 밟을 수 없을 것이라는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론에서만 나오는 수용자는 범죄자로만 취급이 되어 분노의 감정만 생기게 만듭니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분명 나쁘지만, 그들의 삶에 집중하게 되면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연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해자이면서 한때는 피해자였고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집중해 주는 이들이 없어 어긋난 삶을 살게 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안에서 주변을 살펴보지 못함이 소외된 이들을 만들고 어긋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감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고 힘이 되어 준다면 그들의 마음에도 선한 기운이 생겨 좀 더 윤리적인 선택을 고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방 종식될 것 같았던 코로나 19가 여전히 조용한 전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민 끝에 당분간 집단 모임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사는 중지되었지만, 우리들의 일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며 마음의 상처를 마주하고 보듬어 주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선00입니다.

후원신청서 보내드립니다.

저도 한때 후원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제야 그때 받았던 고마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저는 2004년 서울구치소에서 이영우 신부님께 세례를 받고 출소하였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때의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후원을 결심합니다.

저의 작은 보탬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큰 여유를 낼 수 없어서 후원만 하고 나중에 조금 더 성숙하면 봉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과 포기 하지 않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음을 살면서 수없이 느낍니다.

그때 느꼈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고사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것들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늦게라도 실천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목회와 봉사 활동을 해 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선00 올림

과거 서울구치소에서 교정사목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시다가 출소 후 교정사목에 후원자로 돌아온 형제님의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잊지 않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용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20년 8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빛소식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8월 3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8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서품 2년차 사제 연수



5월 27일(수) 서품 2년 차 사제 연수가 은평구 성 앰베르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사목국의 14개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부스를 마련하여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연수에 참석한 21명의 신부님들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스에 방문하여, 활동사진과 50주년 기념 영상을 보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봉사자와 후원회원들에 대하여 새로운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2년 차 사제들이 교정사목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5/13~6/12)

2020년 5월~6월에는 김의수 베드로, 박민규 바오로 형제님, 이경원 에스텔 자매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최길수 비아 자매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 알림

- 7월 6일(월) 10:00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59차 정기총회 및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정시설 집회 및 미사가 잠정 중지되었습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